



포스코 사랑받는기업 백서

Society(사회부문)

■ 요약(Overview)

포스코의 Society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보다 넓은 개념의 사회와 정부는 물론 비정부기구(NGOs)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사회를 의미한다.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경영은 국내외 유력 평가기관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세계적 권위의 지속가능성 평가지수인 SAM-DJSI 조사에서는 2011년 현재 5년 연속 철강부문 리더, 7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또 영국 Accountability사의 평가기법에 의한 글로벌 조사에서 포스코는 53점으로 국내 1위를 차지했으며, 36.5점을 얻은 아르셀로미탈을 훨씬 앞섰다.

포스코의 사회공헌 활동은 창립초기에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발전에 초점을 두었다. 성년기에 들어서서는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새터민,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며 범위를 넓히기 시작했다. 새천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글로벌 사회로 범위를 점점 확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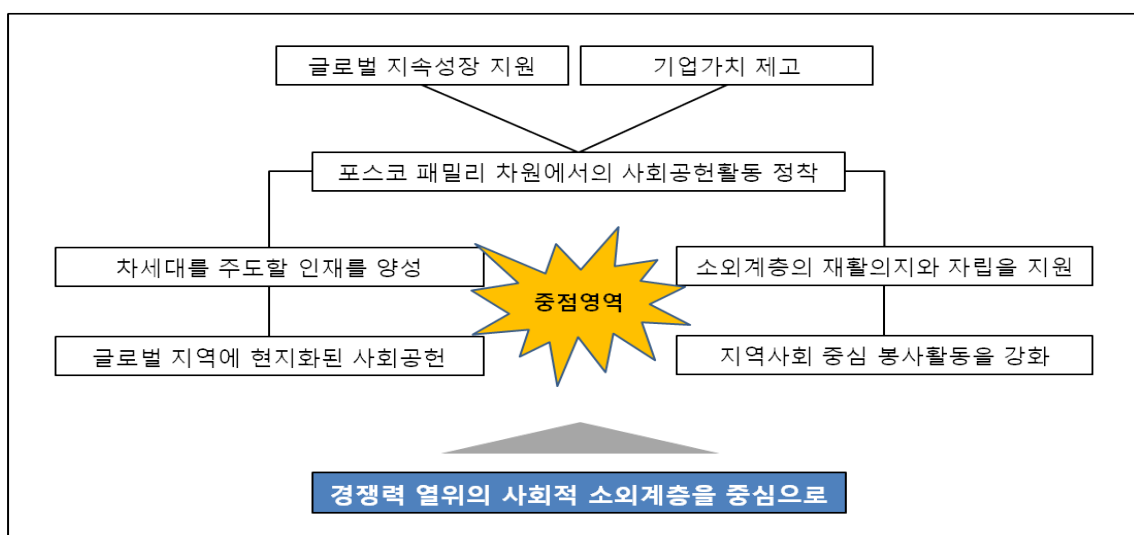
포스코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포항은 포스코 창립 당시만 해도 인구 7만 2000여 명의 항구 도시였으나, 지금은 인구 51만여 명의 산업도시로 성장하였다. 광양은 제철소가 들어서기 전인 1982년 인구 7만 8000여 명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으나, 광양제철소 건설과 더불어 도시화와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대표적인 신흥 공업도시로 성장하였다. 포항과 광양은 프로축구단과 축구전용구장을 갖춘 축구도시이기도 하다.

포스코는 차세대를 주도할 우수한 학생들을 양성하고, 과학자들을 지원하며,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포스코는 철강의 일관 생산공정과 마찬가지로 인재의 일관 육성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15개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POSTECH(옛 포항공과대학)으로 이어지는 교육기관이 그것이며, 포스코 청암재단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소외계층의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생력을 길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매년 100억이 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4개사)을 설립하고, 가중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미소금융(4개 지점)과 이동출장소(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과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자녀교육과 문화차이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포스코는 글로벌 사회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포스코는 아프리카 투자 거점인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모잠비크, 콩고민주 공화국, 카메룬 등 5개국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이들 나라에서 취약한 지역사회의 자립기반 구축과 인재양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 분야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현재 가장 필요한 역량이자 포스코가 오랫동안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축적한 노하우가 많아 자신 있는 영역이다. 또한 포스코는 매년 긴급구호세트 3,000여 개를 제작해 재해·재난이 발생한 국내 및 해외 지역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2010년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동남아 긴급구호센터를 개설하여 재해 지역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포스코는 직원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보상한다. 직원들이 스스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안하도록 장려한다. 2011년 10월부터 CEO를 비롯한 부장급 이상 임직원들이 임금 1%를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있으며, 이사회까지 동참하고 있다. 포스코 임직원들은 입사와 동시에 포스코봉사단에 가입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매년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Global Volunteer Week)를 갖고 현지화된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포스코 직원들이라면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기본적으로 연간 30시간 이상이며, 누적시간이 1,000시간을 넘는 직원들도 300여 명에 이른다. 포스코는 1부서 1촌 맺기를 하여 부서마다 자매결연 마을이 있거나 학교, 기관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 실천원칙(Principle)

원칙#1. 지역사회 발전에 협력·기여한다.

- ✓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일에 협력하고 수행한다.
- ✓ 지역사회의 이슈를 해결해 준다.

원칙#2. 차세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 ✓ 초·중·고·대학생 등 차세대 주역이 될 리더들의 양성에 주력한다.
- ✓ 국내에서 연구하는 기초 과학자들을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 ✓ 한국은 물론 아시아 등 다른 나라의 이해와 교류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지원한다.

원칙#3. 소외계층의 안정과 자립을 지원한다

- ✓ 일회성/생색 내기식이 아닌 장기적,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 일자리 창출 등 소득향상 방안을 모색한다.
- ✓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및 결혼이주 여성의 생활을 지원한다.

원칙#4. 진출지역/진출예상 지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 진출지역/진출예상 지역의 가장 필요한 영역(자립기반, 인재양성 등)을 지원한다.
- ✓ 재난 재해를 포함한 지역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 ✓ 해당지역의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한다.

원칙#5.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한다

- ✓ 직원들이 스스로 자원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제안하도록 장려한다.
- ✓ 직원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장려하고 보상한다.
- ✓ 지역사회의 서비스가 불충분한 지역과 영역을 지원한다.

■ 활동사례 (Activity & Case)

원칙 #1. 지역사회 발전에 협력·기여한다

철강도시로 변모한 포항·광양 포항과 광양 두 도시는 포스코 없이 설명되지 않는 “포스코 중심의 생활 공동체”이다. 제철소를 건설하면서 철도, 항만, 공항, 산업도로, 산업단지, 주택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고, 생산인력의 유입으로 그만큼 인구도 늘어나게 된 것이다.

포항시는 포스코 창립 당시인 1968년 7여만 명의 어촌이었으나, 현재는 인구 52만여 명의 산업도시로 울산의 자동차 산업·조선산업, 구미의 전자산업, 창원의 기계산업과 긴밀하게 연계되는 동남권의 산업 거점으로 변모하였다. 포항시의 재정규모는 1968년 3억 2000만원에서 2011년 4조 4843억 원으로 1만 4013배나 증가하였다.

광양시는 제철소가 들어서기 전인 1982년 인구 7만 8000여 명의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으나, 광양제철소 건설과 더불어 2011년 현재 인구 13만 6000여 명의 대표적인 신흥 공업도시로 성장하였다. 또한 광양시는 광양 컨테이너부두와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동북아 권역의 물류 허브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제철소 건설 전과 2011년 주요 통계를 비교해 보면, 인구는 1.7배 증가하였고, 재정규모는 59억 원에서 2686억 원으로 46배 증가하였다. 특히 수출은 1982년까지 전무하였으나, 2011년에는 21억 달러의 실적을 기록하였다.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활동 포스코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포스코가 지원한 주요 시설은 형산강 산책로, 포항 환호 해맞이공원, 섬안큰다리, 포항문화예술회관, 광양커뮤니티센터, 포항 테크노파크, 전남 테크노파크, 포스코路 점등거리, 해도수변공원 조성 등이다. 이 시설들은 포항국제불빛축제(04년~), 광양 Sunshine Festival(10년~), 광양 대학 국악제(08년~) 등 포스코가 지원하는 지역축제와 함께 지역에 관광객을 끌어 들이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포항국제불빛축제는 누적 경제효과 3,610억 원, 관람인원 680만 명에 이른다.

또한 2010년부터 약9억 원에 달하는 직원 포상금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포항 및 광양지역 쌀 팔아주기 활동으로 52억 원을 구매하여 인근지역 소외계층 및 전직원에게 배포하였다.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포스코는 지역사회의 문화와 체육 발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1980년 건립한 포항 효자아트홀, 1992년 건립한 광양 백운아트홀은 지역주민과 임직원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지역문화 육성의 터전으로 활용되고 있다. 체육진흥을 위해서 포항 스틸러스와 전남 드래곤즈 축구단을 창단하고 각각 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축구 전용구장을 건립함으로써 포항과 광양을 축구도시로 거듭나게 했다.

서울에는 포스코센터에 아트리움을 개장하여 빌딩 숲 속에서도 음악의 향연을 펼치고 있다. 매월 포스코센터 1층 로비 아트리움에서 열리는 음악회는 1999년 밀레니엄 제야음악회를 시작으로 2009년 6월, 100회 공연을 개최했다. 매년 1만 여명의 관객이 관람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등 문화생활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소외 계층을 위한 특별공연도 개최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무료 티켓을 얻을 수 있다.

현장체험학습, 주니어공학교실, 철강캠프 포스코는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포스코 연구원과 엔지니어들이 강사로 나서는 주니어 공학교실은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과학원리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형상기억합금을 이용한 도르래, 압전소자를 이용한 꼬마 병정 만들기, 자기부상열차 만들기 등 실습 위주의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포항제철소는 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활 속에서 철을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인근 63개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포스코는 생활 속 철의 소중함과 환경의 중요성을 느끼고, 공동체 생활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협동심과 배려심을 배울 수 있는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어린이 철강캠프를 1993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1만 2000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2010년 철강캠프는 재미도 있고, 새로운 친구도 사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지 않았지만, 철강캠프를 통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철강캠프를 만들어준 포스코! 감사합니다!”

(김무건 어린이, 포항 양학초등학교)

사랑의 집 고쳐주기, 무료 급식소 개설 포스코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위하여 다양한 봉사 활동과 보육 시설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포항 제철소와 광양제철소는 2005년부터 가옥 수리가 필요한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활동을 펼

치고 있다. 지붕수립, 도배, 누수방지, 싱크대 교체 등 낡은 시설을 보수해 주며 지역사회와 소통한다. 2010년 말까지 포항, 광양에 각각 54세대와 84세대의 주택을 보수했다. 또한 포항, 광양에 각각 무료 급식소를 개설, 2010년 일 평균 600여명의 소외계층이 이용하고 있다.

지역주민과 의사소통 포스코는 지역사회의 성실한 기업 구성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1993년부터 포항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포스코에 대한 호감도 및 지역 협력사업 성과분석’, 2010년 광양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 협력사업 평가 및 호감도 조사 연구’를 통해 포스코는 지역 니즈에 맞는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포스코는 양 제철소에 지역협력팀을 두어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한다. 지역협력팀은 지역 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교육 장학 및 학술진흥 지원사업, 자매결연 및 사원들의 자원 봉사 활동과 소외 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 지원을 주관하고 있다.

원칙 #2. 차세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포스코는 창립 당시 인재가 중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포스코는 제철소에 쇳물이 생산되기 이전인 1971년 제철장학회를 설립하고 종자돈 6천 만원으로 지역사회 및 직원 자녀 장학을 시작하여 차세대를 주도할 우수한 학생들을 양성하고, 과학자들을 지원하며,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설립 당시부터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 결과, 포스코는 철강의 일관 생산공정과 마찬가지로 인재의 일관 육성기관을 보유하게 되었다. 15개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POSTECH (86년 설립, 옛 포항공과대학)으로 이어지는 교육기관이 그것이며, 포스코청암재단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포스코청암재단 1971년 제철장학회로 시작한 포스코장학회는 글로벌 차원의 장학, 학술, 시상, 문예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2005년 포스코청암재단으로 공식 출범했다. 청암재단은 청암상, 과학 펠로십, 아시아 펠로십, 섯별장학, 비전장학 등의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청암상 매년 3월에 시상한다. 과학상, 교육상, 봉사상 등 3개 분야의 리더들에게 각각 2억 원을 상금을 지급한다.

(2)과학 펠로십 국내에서 연구하는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분야의 기초 과학자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도록 박사과정, 신진교수들을 대상으로 매년 30명을 선발하여 2년 동안 각각 7천만 원씩 지원한다.

(3)아시아 펠로십 아시아 국가의 상호이해 증진과 교류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아시아 한국 유학생 장학(75명), 아시아 지역전문가 양성(50명), 아시아 우수대학 장학(294명), 아시아 인문사회 연구·포럼(25명), 계간 문학지 <아시아> 발간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4)셋별장학 포항·광양 우수 고교생, 전국 수학영재들을 대상으로 연간 300명을 선발하여 3년 동안 매년 1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5)비전장학 아동복지시설 출신 우수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100명에게 대학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포스텍(POSTECH: 포항공과대학교) 지식과 지성을 겸비한 국제적 수준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그들의 연구 결과를 사회에 전파하여 국가와 인류에 봉사할 목적으로 1986년 설립된 국제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이다. 국내 최초로 산학연 협동 연구 모델을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고 수준의 이공계 대학으로 발전하였다. 2007년 영국 The Times가 실시한 세계 대학평가 교수 1인당 논문 인용지수 부문에서 아시아 1위, 세계 11위를 차지한 글로벌 이공계 대학이다. 포스텍은 대학 11개 전공학부, 대학원 18개 전공학부, 59개 연구소로 구성돼 있으며, 21개국 82개 대학과 자매결연하고 있다.

포스코교육재단 1971년 교육보국의 정신 아래 설립하였다. 12개의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운영하고 있는 포스코교육재단은 설립 이래 우수 교사를 적극 유치하고 특기 적성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인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가 주최하는 전국 영어·수학 학력 경시대회에서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는 20회 연속, 포항제철중학교는 12회 연속 최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또한 포스코교육재단은 초등학생들에게 미래 기초 과학도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 포스텍과 공동으로 노벨 꿈나무 과학캠프를 개최하는 등 수준 높은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원칙 #3. 소외계층의 안정과 자립을 지원한다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은 소위 말하는 박애주의(회계연도 말에 좋은 목적으로 돈을 기부하는 것)의 범위를 벗어난 지 오래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포스코는 소외계층의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생력을

길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매년 100억이 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4개사)을 설립하고, 가중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미소금융(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자녀교육과 문화차이 극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웃돕기 성금 기탁 포스코는 1998년부터 패밀리들과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매년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이웃돕기 성금 기탁 금액은 2004년 70억 원에서 올해 100억 원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한 총 금액은 750억을 넘어섰다. 또한 포스코는 매년 지역별 지정 기탁 프로그램을 선정, 국내 전문 NGO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포스코는 2004년부터 10회 걸쳐 ‘나눔 실천 온라인 경매’가 이뤄졌다. 소위 말하는 선물경매이다. ‘선물 경매’ (Gift Auction)행사는 윤리경영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다. 선물반송센터에 기탁된 물품을 모아 사내 경매로 수익금을 마련, 사회봉사 기금으로 기탁한다. 선물반송센터는 2003년 추석을 앞두고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설치됐다. 문화적 전통으로 인해 명절이나 인사 이동철에 거래처 등에서 선물이 들어오는 경우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는 스티커를 붙여 반송 서비스를 회사가 대행해 주는 창구이다. 이때 반송이 어려운 선물을 모아두었다가 적절한 시점에 경매하는 것이다. 10회에 걸쳐 생긴 수익금 (총 1720만 원)은 전액 사회봉사기금으로 전달됐다.

희망 일자리 창출-사회적 기업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취약 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희망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의 균형 발전, 지속적 성장에 이르는 중요한 한 걸음이다. 포스코는 자회사형 사회적 기업 4개사를 설립, 운영으로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1)포스코에코하우징 2009년 설립했다. 구성원 110명 중 83명이 취약계층이다. 포스코의 본업인 철강업과 연관된 친환경 스틸하우스 건축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포스코의 보유 자원과 기술, 노하우를 활용하여 영속기업으로 육성된다는 가치를 지닌 포스코에코하우징은 대기업 본업과 연계한 국내 최초 자립형 사회적 기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포스코에코하우징은 회사가 일정 궤도에 오르면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도 지역사회와 호흡하고 있다. 포항시 장학회에 지분 30%를 무상 기부해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도 활발히 참여한다. 회사 주변 마을 청소, 해안가 정화에도 나선다. 창출된 수익을 지역사회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에

쓰겠다는 기본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 2011년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사회적 기업 모범업체로 선정되어 경영활동과 기술력을 대내외에 인정받았다.

(2)포스워드 포스코가 국내 최초로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다. 국내에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시행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8년 출범시켰다.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포스워드의 장애인 고용률은 2009년 50%(법률적 의무는 30%임)까지 확대되었고, 2012년 60%를 목표로 하고 있다. 포스코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무지원, 세탁, IT 및 통신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포스워드는 향후 명함제작, 채용 대행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며 그룹사 Shared Service Center(지원부서가 해야 하는 업무들을 통합한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3)포스플레이트 2010월 설립했다. 광양 신후판 공장 시편 가공, 제품 창고 관리 작업 등 외주작업을 맡은 사회적 기업이다. 시편 가공 분야의 경우, 가스전기 컴퓨터 응용 밀링 및 선반기능사 등 취약계층 29명을 포함한 50명이, 창고관리 분야의 경우 천정 크레인 운전기사 등 취약계층 38명을 포함한 76명이, 하이메탈 외주사업의 경우 취약계층 28명을 포함한 56명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광양제철소 재질시험과의 시험판 가공 업무를 맡고 있는 외주파트너사 (주)대진과 상호 업무를 지원하는 협정 조인식을 가져 설비 분석력 등 기술력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송도SE 2010년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새터민과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이다. 현재 인천 송도 지역에 신축된 포스코건설 사옥과 포스코 글로벌 R&D센터의 청소, 주차관리 업무를 맡아 건물 전문 관리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지금까지 취업 취약계층 12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들 중 40명은 새터민이며, 고용인원은 2012년 170명(새터민 50명 포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송도SE는 인천고용센터와 인천지역 새터민, 저소득층,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인천고용센터는 송도SE가 필요한 적합한 인원을 적시에 추천하고, 송도SE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송도SE 내에 무료 청소년실습교육장을 상시 운영하여 인천지역 내 미취업 취약계층에게 무료 청소년실습교육을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의 구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5)사회적기업 간접지원 국내 사회적 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2011년부터 포스코 패밀리 17개사가 1사 1사회적 기업 지원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업 제품 및 용역 우선구매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포스코 전문경영인으로 구성된 프로보노 봉사단이 매월 1회 지역 사회적 기업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홍보용 팸플릿 디자인, 회사 신문광고대행, IT지원, 프랜차이즈 개설 등 다각적인 컨설팅을 펼치는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연계하여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기업가 양성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서 40개 팀의 교육을 실시하여 12개 팀(2개 팀 창업 완료)의 예비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NGO와 연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포항지역의 국수전문점 ‘면사랑’ 4개점을 설립 지원하였으며, 지역 청년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Hisbeans’ 커피점 1,2호 점을 설립·지원하였다.

다문화가정 지원 포스코는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유입되는 다양한 문화를 한국 사회가 개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결혼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포스코는 2010년 여성가족부와 MOU를 체결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결혼 이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취업·창업 지원,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이중 언어 역량을 강화하는 동기화 프로그램 마련 등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1년에는 결혼 이주민들의 상담 전용 전화인 ‘다누리 콜센터’를 개소하여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1)창업 자금 지원을 위한 미소금융 대출 포스코미소금융재단이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대출 상품 ‘다문화가족 자립 지원자금’을 개발하여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2)다문화가족 합동 결혼식 포스코는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일곱 쌍의 합동 결혼식을 챙기기도 했다. 참여 부부 및 가족의 사연을 스토리 형식으로 소개해 다문화가족과 결혼식 참석자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했다.

(3)다문화가족 아동의 다중 언어 역량 지원 다문화가족 아동들을 한국과 ‘엄마 나라(母國)’의 교량 역할을 할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 가족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포스코는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다중 언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의 우수한 아동을 선발해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서포터즈로, 2011년에는 다문화가족 언어영재 우수 아동을 여성가족부로부터 추천받아 전통문화캠프와 베트남 엄마나라 문화원정대를 파견하였다.

(4)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정보 제공 2006년부터 결혼 이민을 앞둔 해외 여성들에게 한국의 사회, 문화 정보를 제공하여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 기초 정보를 담은 교육 매뉴얼 제작, 출국 전 정보 제공 프로그램(주 3회)을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다.

(5)다문화가족 포럼 및 Job Fair 포스코는 2010년 6월 정부, 학계, NGO 등이 참석한 다문화 포럼을 개최하여 결혼 이주 여성의 취업·창업 일자리 연계, 글로벌시대 아동의 다언어·다문화 교육 등을 주제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활동을 제안하였다. 현재 다문화가족포럼으로 발전하여 진행 중이며 다문화 가족 여성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Job Fair도 개최했다.

(6)다문화가족 음악회 다문화가족에게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교육 연주자들로 구성된 아델리아 트리오(재미교포 3명)가 클래식 음악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아델리아 트리오 음악회는 연주자 중심이 아닌 청중 중심의 신개념 참여, 체험 음악회를 펼쳤다. 위대한 곡에 숨겨진 작곡자들의 경험과 영감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족들은 그들의 꿈과 희망을 찾아간다.

(7)헬로 아트캠프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체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포스코는 2009년부터 한국메세나협의회와 협력하여 포항, 광양 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국악, 미술, 음악, 연극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한 자리에서 체험한다. 아트캠프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예술 감수성 발달과 정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원칙 #4. 진출지역/진출예상 지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포스코는 최근 해외투자가 확대되면서 진출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우선 취약한 지역사회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인재양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 분야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현재 가장 필요한 역량이자 포스코가 오랫동안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축적한 노하우가 많아 자신 있는 영역이다. 포스코는 아프리카 투자 거점인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모잠비크, 콩고민주 공화국, 카메룬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콩고·짐바브웨 장학사업 포스코청암재단은 2011년부터 아시아 펠로십을 아프리카로 확대한 포스코 아프리카 펠로십을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콩고 민주공화국과 짐바브웨에서 아프리카 현지 우수대학 장학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대학교 등 현지 우수 대학교의 석·박사 과정을 다니는 학생에게 연간 500달러씩 장학금을 지원하고 앞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포스코청암재단은 아프리카 학생이 한국 대학에서 유학할 경우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이번 장학사업을 통해 아프리카의 우수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장기적으로 한국과 아프리카의 상호협력 및 공동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연합(AU) 본부가 있는 국가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 포스코는 아프리카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을 경상북도 도청,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에티오피아에서 진행한다.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세 곳에서 4년 동안 새마을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새마을봉사단을 파견해 지역민과 함께 지역개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포스코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낮은 자존감과 높은 의존성, 개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근간으로 의식개혁 활동을 진행하고 △저수지 및 수로 건설 △가축은행 사업 △고소득 작물재배 등 소득기반 조성 사업 △화장실 개·보수 △마을 진입로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병행한다. 포스코는 새마을 사업을 진행할 에티오피아 지역 공무원과 주민지도자를 한국에 초청, 2011년 6월 4주간 교육을 진행했다.

“제철소를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무엇보다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이라는 제철소 정문의 글귀가 마음에 와 닿았다. 공장의 뜨거운 쇳덩이가 철강제품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티오피아에도 포스코와 같은 기업이 생겨나 에티오피아의 변화를 견인하기를 무엇보다도 소망한다. 포스코의 창업정신과 새마을 정신을 통해 에티오피아 사람 한 명 한 명이 변화한다면 언젠가는 에티오피아도 한국만큼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멜레세, 에티오피아)

슈퍼옥수수 사업 포스코는 짐바브웨·카메룬·콩고민주공화국에서 옥수수 박사로 불리는 김순권 교수(국제옥수수재단 이사장)와 슈퍼옥수수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짐바브웨의 하라레, 카메룬의 야운데 및 가루와, 콩고민주공화국의 킨샤사와 루분바시, 부르키나파소의 와가두구와 보보 등 4개국에서 수도를 포함한 7개 주요 도시에 아프리카 지형에 적합한 옥수수 종자를 개발하고 이를 주민에게 보급하는 것이다. 슈퍼옥수수는

김순권 교수가 개발한 종자로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높다. 포스코와 김순권 교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다.

지역어린이개발센터 운영 짐바브웨는 장기간의 독재로 1인당 GDP가 129달러에 불과하며 인구의 20%가 에이즈 감염자다. 짐바브웨 전체 토지의 78%가 농지이지만 농업 생산성은 낮아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포스코는 국제기아대책과 함께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 인근에 포스코지역어린이개발센터를 운영한다. 이곳에서 에이즈에 걸린 아이, 부모로부터 소외 받은 아이들이 바른 인성을 갖고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포스코패밀리 임직원과 일대일 결연도 추진해 포스코의 글로벌 자매마을로 육성, 지역농업훈련 센터를 열어 영농지도자를 양성하고 공동 농장도 운영해 자립역량향상과 빈곤퇴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농업기술자 양성 포스코는 한국 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모잠비크의 수도인 마푸토 인근 마니사 지역에서 빈곤퇴치사업을 추진한다. 마니사 농업훈련센터에서 농업기술교육을 통해 낙후된 모잠비크 농업을 발전시켜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과 농업기술자 양성 활동을 벌인다. 포스코는 현재 2012년부터 연간 100여 명의 농업기술자 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모잠비크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900만㎡(약 270만 평)의 공동농장에 경운기·트랙터 등 기계식 영농을 도입해 주민들이 5년 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익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문맹퇴치 교실을 운영해 문맹률 개선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몽골 인재양성 포스코는 지구촌나눔운동이 진행하고 있는 인재양성 사업의 핵심 파트너다. 몽골에서 2010년에 개원한 POSCO-GCS 국제개발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연간 300여 명에 달하는 몽골 전역의 주민 지도자에 대해 7박8일간 교육을 진행한다. 2010년 교육을 수료한 123명 중 8명의 우수 수료생이 열흘간 포스코의 에코팜에서 한국 초청 연수도 받았다. 또한 국내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몽골과 베트남으로 연간 10명의 한국 청년을 파견하고 6개월간 해외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가 돌아가서 배운 것들을 과연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포스코에서 배운 ‘하면 된다’의 정신으로 도전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에코팜을 통해 직원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노력한다는 사실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젊은 사람, 나이든 사람 상관없이 모두가 성심을 다해 일할 때, 또 서로가 더불어 도와가면서 일할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는 포스코란 이름을 들을 때마다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포스코는 이제 저에게 큰 '격려와 희망, 하나의 도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 (토야, 몽골)

긴급구호 활동 포스코는 지진, 홍수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재민을 신속히 돕는 긴급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재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현지 특성에 맞게 구성한 긴급구호키트를 제작하여 보다 효과적인 구호 활동을 벌인다. 긴급구호키트는 지진, 해일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담은 상자이다. 포스코는 긴급구호활동의 파트너 NGO인 한국 기아대책과 함께 매년 3,000여 세트를 제작해 재해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작한 긴급구호키트는 강원도 인제 등 국내 수해 지역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북한, 인도, 대만, 중국, 아이티 등의 폭우, 지진 지역에 전달되었다.

동남아 긴급구호 센터 건립 2009년에는 국내 재해 현장에 신속히 보낼 수 있도록 1억 원 상당의 긴급구호 차량을 지원하고, 화재 주택지원 사업으로 전국에 스틸 하우스를 4채를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전염병 예방과 생존을 위해 일 분 일 초가 급하다는 것. 일말의 지체도 없이 긴급구호키트를 보낸다 해도 구호물자가 오고 가는 물리적 시간까지 줄일 수는 없었다. 이것이 포스코가 현지에서 직접 키트를 제작하고 보관, 배송하는 동남아 긴급구호센터를 설립한 이유이다. 포스코는 2010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동남아 긴급구호센터'를 개설하여 재해 지역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원칙 #5.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한다

직원들의 역할은 포스코가 어떻게 지역사회의 지지를 얻는가에 있어 중요하다. 포스코는 직원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보상한다. 또한 해외 봉사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젊은이들이 글로벌 나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고 현지 직원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이 포스코 해외 봉사 활동의 주요 방향이다.

임직원 임금 1% 나눔운동 포스코는 2011년 포스코패밀리 전 임원 및 부장급 이상 간부사원 830명이 임금 1%를 기부하기로 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외이사들도

나눔운동에 동참하고 임직원들이 기부하는 금액만큼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기부하기로 의결함으로써 모금액은 연간 11억 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정준양 회장은 이사회 결의 후 “포스코패밀리 나눔운동은 포스코와 출자사 리더계층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기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소외계층과 공생 발전해나가는 전형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번 나눔운동이 새로운 기업문화로 정착될 뿐 아니라 임직원 개개인의 생활양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금 1% 나눔운동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위탁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과 복지시설용 스틸하우스 건축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다문화교육원과 함께 전국 200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결혼이주인 170여 명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강사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다문화 다중언어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포스코봉사단 포스코는 2003년 봉사단을 창단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범 포스코패밀리 차원의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2009년 포스코와 출자사, 외주 파트너사, 주요 공급사(PCP: 포스코 인증 공급사) 임직원 4만 1천여 명으로 구성된 포스코 패밀리 봉사단(포항 봉사단, 광양 봉사단, 서울 봉사단)을 창단하였고, 이어 2010년에는 인천지역봉사단을 창단함으로써 서울 경기지역으로 활동범위를 넓혔다.

포스코 임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포스코 패밀리 사회봉사단에 가입하게 된다. 직원들은 자원봉사 e-러닝 교육 과정과 교육용 CD를 통해 체계적인 나눔 교육을 받는다. 포스코는 매월 셋째 주에는 나눔의 토요일 행사를 진행하는데, 매월 평균 7,000여 명이 참석한다. 2011년에는 포스코 패밀리 모두 1인당 연간 3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는 사회공헌 시스템을 개발하여 부서별로 봉사그룹을 자율적으로 등록, 봉사실적과 봉사 수요처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1,000시간이 넘는 봉사활동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직원만도 300명이 넘는다. 봉사활동 1,000시간은 일일 8시간 봉사한다고 했을 때, 125일이 된다. 1년의 1/3이 넘는 시간이다.

포스코는 또 직원들의 지식(재능) 기부를 장려하는데, 2008년부터 임직원들이 사외 출강 및 기고문으로 받은 강사료와 원고료 3억여 원을 인도네시아 10개 학교에 도서를 지원했고, 현지 적십자에 혈액 필터링 기계를 기부했다.

대학생 봉사단/청년 봉사단 포스코는 대학생들의 봉사정신을 강화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2007년 포스코 대학생 봉사단 ‘Beyond’ 를 창단했다. 매년 100여명의

봉사자를 선발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집짓기 등의 봉사활동과 교육을 통해 미래의 나눔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봉사단원들은 국내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을 비롯해 팀별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해외 봉사활동, 활동결과 발표회 등 1년 과정을 함께 한다. 그 동안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와 더불어 집짓기 봉사활동과 문화교류를 해왔다. 또한 청년 봉사단 20명을 베트남, 몽골에 파견해 6개월 동안 포스코가 기증한 컴퓨터와 전산 기자재를 활용하여 소외 계층에게 IT 교육과 한글 교육, 레크리에이션 등을 실시하였다.

포스코패밀리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POSCO Family Global Volunteer Week) 전세계에 있는 포스코 패밀리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가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포스코 패밀리사가 진출한 세계 각국과 지역사회의 니즈를 반영한 봉사프로그램을 기획한다.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멕시코,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 20개국 4만 5천 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긴급구호, 환경 정화, 복지시설 봉사, 주택 수리 등 다양한 봉사와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보육원을 방문하여 청소, 도색, 구연동화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내 작은 힘으로 베트남의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미소와 작은 행복을 전 해준 것뿐입니다. 한편으로는 포스코 패밀리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나눔을 실천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뿌듯합니다.” (류테홍, POSCO-VIETNAM)

자매마을 1부서 1村 등 자매결연 활동 자매결연 활동은 포스코의 지역사회 나눔의 대표적인 활동이다. 포스코는 각 부서마다 자매마을이 있으며 직원들은 주민들과 주기적으로 교류를 하기 때문에 ‘순가락 개수도 알고 있다’ 고 할 정도로 지역주민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다. 1988년 광양 하광마을을 시작으로 포항 125개, 광양 118개, 서울 7개 마을과 학교 및 단체 32곳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이들이 포스코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대응을 한다. 벼 심기, 감 따기 등 농사철에 따라 부족한 일손을 돕고, 도시에서는 식당 일일 종업원이 되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일일 교사로도 활동을 하기도 한다.

“포항제철소에 입사한 지 2년째 되던 1986년에 소년소녀가장 돕기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봉사모임을 만들었고, 포항시청을 통해 소년가장인 12살 꼬마 숙녀를 만나게 됐죠. 25년이 지나 서른일곱 살의 여인이 된 ‘그 소녀’가 전화로 저희 삼남매를 돌봐줘서 감사 드린다는 말을 전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전남수, 광양제철소)